

배·우·는·가·활·함·께·하·는·가·활·통·일·을·여·는·가·활

'95 여름 기지촌 활동 자료집



<× 여기서 "오 마이 갓"이란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말입니다 >

통일준비위원회

자·주·여·성·의·삶·제·11·대·여·학·생·회

여론이 힘! 변혁의 시작!

민세대 제9대 총학생회

사랑

사랑은 잔인한 것, 냉혹한 결단
사랑은 투쟁, 무자비한 투쟁
사랑은 회오리
온 바다와 산과 들과 하늘이 들고 일어서
폭풍치고 번개치며 포효하는 피빛으로
새로이 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고요의 빛나는 바다
햇빛 쏟아지는 파아란 하늘
이슬 머금은 푸른 대지위에
생명있는 모든 것들 하나이 되어
춤추며 노래하는 눈부신 새날의
위대한 잉태

사랑은 자기를 해체하는 것
우리가 되어 역사속에 녹아들어 소생하는 것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에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곡, 피투성이의 몸부림
사랑은 갈라섬,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
사랑은 고통, 참혹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피로운 노동자의 길

오늘제사(대에서) ...



미제-대국...?



(1950년 10월 25일) ▲ (1950년)

글순서

1. 자료집을 준비하며
2. 배우는 기할, 믿음살는 기할
 - 1) 기할의 발자취
 - 2) 동두천 두레방 프로그램
3. 기지촌의 실태
 - 1) 기지촌 여성의 삶
 - 2) 기지촌의 아이들과 교육환경
 - 3) 두레방
4. 주한미군의 현주소
 - 1)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 2) 주한미군 범죄사
 - 3) 한미행정협정의 개선방향
5. 한미관계의 재인식
 - 1) 군사부문
 - 2) 정치 부문 ~ 미국의 대통령 만들기
 - 3) 경제부문
 - 4) 문화부문
6. 만델라와 8·15민족공동행사
7. 우리들의 말
 - 1) 소설 <뱀발>을 읽고
 - 2) 정신대를 말한다
8. 다함께 배우는 노래
 - 1) 들어라, 양키야
 - 2) 딸들아 일어나라
9. 기할을 다녀와서~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자료집을 준비하며

(여학생회 학술부장 94 이경신)

나는 기활 자료집을 준비하며 내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 또한 그들을 볼썽하게만 여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뱃별>이라는 소설책을 읽으면서도 단지 남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다. 자료집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난 다른 자료들을 들추어야만 했다. 다른 자료들 속에서 그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된 지금. 난 몹시도 혼란스럽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누런 작은 행복마저 이 사회에선 정말 특혜를 받는 것일까? 진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는 싫다. 그들을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다고 기지촌 까지 흔들어간 그녀들의 잘못일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있다.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그들을 질책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꽤 이전 여성들이 생겨났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다. 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자! 한 하늘아래 살고 있는 한 민족으로서 아니,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싶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집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반미를 외친다. 그들은 얼마나 알까, 그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녀들의 생을 얼마나 살갑게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를 했는가. 나 또한 내리는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뱃별>을 읽으면서 나는 단지 내 조국이 식민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만 여기지 않았던가. 내 민족의 고통이고 나의 신음인것을... 누가 내 민족을 그 연약한 여성들을 알아버렸는가.

모래사장의 그 무수한 모래알중에 한 알밖에 안 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민족을 팔았다. 그리고 미국.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짓밟았다. 우리의 어인들을 짓밟았다. 우리의 나같은 무엇인가를 고먼하며...

☆ 배우는 기활, 믿음 쌓는 기활 ☆

■ 배우는 기활, 믿음 쌓는 기활

기지촌 활동의 발자취

기지촌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1990년의 첫번째 기활은 개인적으로 두레방을 알고 있거나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의정부두레방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학생들 사이에 기지촌 여성운동이 알려지고 그들에 의해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 특히 두레방 팜판매와 놀이방과 공부방 자원활동등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각 학교 과단위 학생회나 여성학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 준비하였고 의정부두레방과 동두천두레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활동에 참여한 학교들의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여학생회가 조직되거나 강화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기활의 활동내용과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1992년도에는 서여대협과 수여대협이 그러한 모범을 받아안아 여대협차원에서 기활을 제안하여 준비하고 수행하였다. 1992년 기활은 본격적으로 기활이 여학생운동의 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두레방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기활이 참사랑 쉼터가 있는 송탄에서도 진행되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1993년 여대협에서 기활추진위원회라는 특위를 꾸려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교양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활동하였고, 매해춘관련단체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 참사랑쉼터, 다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1994년에는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으로 지역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서여대협의 거의 모든 학교가 기활에 임하는 등 조직적인 모습이 갖추어 졌고 지구별 자활력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지역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는 해였다.

"1995년에는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 전체의 기활 확산을 꾀하는 차원에서 지역학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오만 방자한 미군의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중의 여론이 어느때보다 드높아 기활을 들어가는 23개 학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 동두천 두레방 프로그램

1. 기지촌 활동 일정: 7월 31일~8월 5일

2. 동두천 두레방은?

90년 12월 3일, 동두천에도 두레방이 열렸다. 거대한 미군 기지촌 그 주변 주거권이 하나의 기지촌으로 발전해온 동두천에서 두레방이 문을 연 곳은 주한미군 중 가장 중요한 지상군 기지이고, 1만 5천의 미군을 포항하고 있는 캠프 - 케이시 미군 부대의 바로 옆이다. 이 곳은 기지촌의 여성들이 가슴속에 맺힌 한과 억울함, 분노를 풀 수 있는 편안한 한 켠터이다.

3. 두레방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06:00			기상		
08:00	출근		아침식사, 청소		
10:00			조식		
10:30			주제별 토론		
12:00			식사준비		
13:00			공동식사		
14:00			회원과의 만남		
15:00			공부방		
18:00	자체일정	회원집 방문	부대 방문	동두천시 대학생회간담회	클럽 방문
21:00			평가, 일지쓰기, 내일 활동 준비		전체 평가

■ 기지촌의 실태

》 기지촌 여성의 삶

" 왜 밀짚한 여자들이 동두천에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미국에 환장해도 그렇지 미국에 미친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연조이 하면서 돈도 벌겠다는 여자들의 타락된
가치관이 문제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군들의 성노리개가 되어, 미군에게 버림 받고 콜라병에 살 찢기고 사기당하고 강간당하면서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미국에서도 가장 <핫바리 계층>이라는 미군과 결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까? 지금은 엄연한 독립국가라는데 어찌하여 외국군대는 아직도 수도 한 복판에, 전국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미국군대는 어찌해서 근 50년이나 다 되도록 이 땅에 주둔할 수 있는 것일까? 기지촌 여성들은 낮과 밤을 바꾸어야 하는 생활, 성병으로부터의 공포와 사회적 편견과 질시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매춘 여성들에게서조차 '양놈에게 붙어 먹고 사는 싸구려 양갈보' 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가장 열악한 사회 환경에 처해 있다.

나는 1943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는 여수에서 '대륙식당'이라는 제법 큰 식당을 하고 있었다. 돈푼 깨나 있는 아버지는 '군산' 출신의 여자와 바람이 나 어머니를 버리고 일본으로 출정량을 쳤다. '일부종사'를 신념으로 여기시던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아버지와 슬바꼭질을 계속 했다.

어머니를 찾아온 아버지는 거문도에 있는 '적산가옥' 한 채를 위자료로 내놓으시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 때 내 나이 11살.

아버지로부터의 버림과 더불어 11살 때 최초의 성폭행. 먼 친척뻘되는 오빠가 있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나에게 가끔 종이와 연필, 설탕등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성폭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는 그저 아랫도리가 '뿔어지는 아픔'만을 느꼈을 뿐이다. 그 뒤 오빠의 친구 방에 끌려가 두차례나 더 강간을 당했다.

두 눈을 감자 망막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서 외갓아버지의 심술궂은 얼굴이 겹쳐져 왔다.

" 처녀가 아비 없는 자식을 뱌으니..."

" 저대로 둘 순 없지요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 만나보고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미쳤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모르고 설사 아버지가 밝혀진다고 한들 청피한 꿈을 어찌 본단 말이오 미쳤어"

"저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 남자와 결혼을 시키던지..."

"절대로 안돼 쫓아내든지 해야지."

두 사람은 소리낮춰 싸우고 있었다.

'의붓아버지...'

< 뱃밀 중에서 >

기지촌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에 종사하다가 팔려오는 경우와 바로 오는 경우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딸이거나 결혼 가정 출신이 많고, 강간당한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 한 나머지 기지촌에 들어오기도 한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춘 여성이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3가지정도가 있다. 빚을 지고 사창가에서 기지촌으로 팔려오는 경우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좀더 화려해보이고 돈벌 세다는 기지촌으로 흘러드는 경우, 그리고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기에 미군을 만나 미국에 가는 꿈을 갖고 오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는 순결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과거를 묻지 않는 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다. 실제로 기지촌 여성들이 한국남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모두 다 미군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하지만, 다소 차이를 가진 계층으로 나뉘는데 클럽 여성, 국제결혼한 여성, 히빠리, 뜨내기 등이다.

1) 클럽여성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9개의 camp가 있다. 그 중 camp stanly의 후문쪽 약 400m 길가에는 각종 기념품 판매 가게와 club은 내국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미군과 내국인 여성만이 출입할 수 있고, 미군 전용 술집으로 바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들 club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보통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체로 club에 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유형은 club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이들의 활동하는 club의 영업은 미군의 퇴근시간인 저녁 6-7시에 시작되어 새벽 2-3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기지촌 여성들은 이러한 club의 생활주기에 맞추어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게 된다. 이들 기지촌여성들은 club에서 파는 술값과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받는 화대가 주수입원이 된다. 이들의 수입중 대부분은 켄푸와 포주에게 착취당하고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하며 그나마도 빚

을 갚다보면 오히려 빚이 더 늘어 기지촌을 벗어 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모멸적 대우와 인식이 이전의 사회경험과 맞물려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족쇄가 된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미군을 만나 자신의 빚을 갚고 국제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미국에서도 최하류층이어서 기지촌 여성들이 당하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국제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도 영어를 잘 못해 집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들로 부터 갖은 행패를 당한다 해도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무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의 처지와 고립적이고 개인적인 불안정한 생활은 이들로 하여금 어디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오직 선량한 미군의 구원의 손길만 기다린 채 기지촌에서 나이를 먹어 가면서 포주가 되거나 혹은 켄푸로 되거나 밤에만 자기의 몸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다.

2) 국제결혼한 여성들

기지촌 여성들의 매춘 화대가 내국인 상대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도 아닌데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의 결혼 풍속은 과거가 있는 여자를 멸시하며, 섣달 결혼을 해도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미군과의 결혼이 동족과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 편하고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정절과 순결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병리현상을 꼽는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의 사고는 클럽에 빚져 있는 여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소유의 의식이 강해 부부관계 또한 불명동하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 하루를 참혹하게 살아가던 기지촌의 매매춘 여성은 새생활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국제결혼을 하지만 얼마 못가 꿈과 계획은 무너지고, 이들은 이국땅인 미국에서 조차 술집이나 환락가로 빠져들어 국내에서와 같은 가난과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 히빠리, 뜨내기 여성들

나이가 들어 클럽에 나갈 수 없는 여성들 중에는 미군과 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중간 소개자인 켄푸가 있지만, 직접 개별적으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들을 흔히 히빠리라고 한

다. 이미 육체적으로 건강은 나빠져 있고 건강한 노동으로의 길이 차단된 이 여성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춘행위를 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미군으로 부터 버림받고 혼혈아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클럽여성들의 경우 패스가 있어 성병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 빠져있을 뿐이다. 프대기는 기지촌을 근거지로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한 말이다. 기지촌 여성은 분단국가의 현실이 낳은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기간 중 여성들은 미군을 따라 훈련장으로 이동을 한다. 포주에게 묶여 있어 자유롭지 못한 다수의 여성들은 심한 감시와 제약 속에서 하루 10명 이상의 미군을 상대로 한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온갖 피해를 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마땅히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따돌림당하고 버려진 기지촌 에서도 미군들에게 철저히 예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기지촌의 아이들과 교육환경

1) 혼혈아

아이들은 엄마들이 술을 먹거나 말거나 놀이에 열중하는지 청얼거리지 않고 지회를 끼리 잘 놀고 있었다. 자폐증인지 말 한마디 못하던 여섯 살 박이 랜다가 요즘은 제법 말을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영양실조에 걸린 듯한 얼굴 핏색한 수자가 인형을 안고 얼굴을 비벼대고 있었다. 제일 덩치가 큰 몸이 수자의 인형을 빼앗으려고 하자 수자가 몸을 돌렸다.

"우리 아빠한테 너 혼나. 우리 아빠 내개다."

"너만 있어? 우리 아빠 다섯 개나 돼. 두 개는 까맣고 세개는 하얗다!"

브라이언이 멍하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언젠가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대디! 대디!> 하고 소리쳤었다. 브라이언의 아버지도 데이비드의 아버지처럼 미국 가더니 등을 짝 돌리고 말았다.

수자가 남자 인형의 한쪽 손을 들어다가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인형의 가랑이 사이를 막 비벼대며 말했다.

"먹어! 먹어!"

"야 옷 벗어 자자."

<뱃별 중에서>

기지촌에는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난다. 1946년 이후 태어난 혼혈아의 숫자는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지만 약 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식의 출생을 초조히 기다리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미군과의 동거관계가 깨어지면서 부양능력이 없는 매춘여성의, 조국의 버림으로 대부분 해외입양이 되고 있다. 기지촌 지역의 혼혈아들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생활, 잦은 부모의 이동과 구타로 인한 정서불안과 애정 어린 돌봄의 손길이 없어, 행동이 난폭하고 한국아동과 접촉을 꺼려하고, 말을 잘못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빈민지역과 다름없는 월세, 전세 단칸방에서 클럽에 나가는 엄마, 미군으로 있는 아빠를 둔 혼혈아는 불안정한 생활이 파경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고아원, 해외입양 되어 나간다. 한국에서 자라는 이들 혼혈아는 우리 나라의 타인종을 거부하는 생활 문화에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미군 측의 기지촌 주변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들 혼혈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우리 나라의 모습에서 매매춘 여성과 혼혈아는 이 땅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버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2) 혼혈아가 아닌 기지촌의 아이들

기지촌에는 혼혈아 뿐 아니라 포주(클럽주인)의 아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인 한국의 아이들에게도 기지촌의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이 끼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혼혈아들 뿐 아니라 기지촌 아이들은 모두 미국의 저질스런 문화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로 오염된 기지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심각하게 해쳐지고 있다. 또한 미군의 의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강간의 위협이 매우 높다.

3) 기지촌의 교육환경

몇달전부터 홍대가 떠들썩했다. "교육환경 사수!" "재건축 반대!" "악덕기업 진로는 홍대앞을 떠나라!" 등등의 구호가 평범해 보이는 학생들의 입으로 온 학교와 서울시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다. 홍대 정문앞에 진로와 동광이 9층짜리 유흥업소를 지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까지도 모두가 뿔뿔뿔뿔히 최·최·향락문화로부터 교육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싸운결과는 비교적 승리적이었다.

"세상에 원샷바가 뭐야. 우리애가 지금은 국민학생이지만 나중에 사춘기때 한참 감수성 예민해지면 코 앞에 술집이 있는데 안가겠어?"

"아니 누가 정문 바로앞에 술집으로 뽕뽕히 한 대학에 자식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홍대는 그나마 양호한 편.

나이트 클럽, 여인숙, 원샷바, 락카페 등등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 그 환경속에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생계의 수단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기지촌의 아이들이다.

기지촌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소위 '저질 양키 문화'속에서 성장한다. 게다가 어머니가 매매춘 여성일 경우 아이들은 또 다른 문화로 얼룩진다. 게다가 매매춘 여성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하다. 한달 순수 생계비가 4만원정도인 이들에게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혼혈아들의 경우는 한국 아이들보다 더 열악하다. 어느 나라도 -한국도, 미국도-자신의 모국이 될 수 없기에 건강한 노동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정신적/ 환경적 억압속에 애초부터가 불가능하다. 혼혈아들의 대부분이 정말 잘되면 입양되거나 연예인이 된다. 또 밤무대에서 가수로, 연기자로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성의 경우 어머니처럼 미군을 상대로한 매매춘의 길로 들어서고 남자들의 경우 클럽에서 일하거나 범죄의 길로 들어선다. 그야말로 "배운게 도둑질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한국 속담의 생생한 점증의 장소인 것이다.

기지촌 주변의 아이들은 또한 미국의 환상을 먹고 자란다. 우람한 미군의 보루도 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랍보를 연상하고, 강한 랍보의 모습을 통해 강한 나라인 미국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는 다른 차원으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태생으로 인해 미국에 가는 것이 삶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혼혈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중 하나는 '조국'에 대한 맹목성이다. 혼혈아들은 강한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의 조국이고 싶어한다. 그들은 미군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늘 약물과 알콜에 젖어 사는 나약한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을 조국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기지촌의 아이들은 또한 '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어머니와 미군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한방에서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처에 널려 있는 클럽으로 인해 성적·피해문화를 어릴적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문화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때론 황당하게 나타난다. 어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질 속에 연필을 집어넣으려다가 혼나기도 하고 몸이 조금 숙성하게 되면 서로 그들이 본 성관계를 실험(?)해 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서울시의 반을 넘는다. 극도로 절망적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그만큼의 기지촌 아이들.....

미군기지촌 여성공동체 두레방

두레방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기초로 기지촌 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자신들의 억눌린 삶을 해방하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선교적 사명으로 한다.

● 예배

월 1회 정기예배와 창립기념예배,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절예배, 성탄절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예배프로그램을 통한 신앙과 실천을 직접 삶에 옮기도록 한다.

● 상담

답답한 사정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끌어 안고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 개인, 부부, 자녀상담을 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집단상담을 하기도 한다.

● 공동식사

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때 밥을 먹을 수 없는 여성들과 늘 함께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정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 영어, 한국어 교실

대화의 단절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미국인 남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 요리 교실

국제결혼한 여성들에게 미국인 남편들이 무시하곤 하는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고 남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국음식과 여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국음식을 가르친다.

● 도자기, 지점토, 뜨개질 교실 등

취미생활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부업으로서의 기능도 도모한다.

● 두레놀이방, 공부방

인근 지역 주민의 어린이들과 혼혈아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아가들의 놀이터와 합습장이다. 놀이, 공부방의 교육목표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주고 기지촌의 군사문화와 저질비디오 문화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놀이방, 공부방은 기지촌 지역단체가 기지촌에 자리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힘겨워 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변해 가는 모습을 통해 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가는 것이다.

● 두레빵방

다양한 종류의 무방부제 빵을 만들고 있다. 직업이나 나이 때문에 더욱 소외되어 가는 이곳 여성들과 함께 건강한 노동으로 환원을 위하여 정성껏 빵을 만들고 있다.

☞ 환경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다면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로 인한 그 슬한 잘못은 너무나 위협스럽게
너무나 가까이 우리의 현재의 삶속에 다가와 버린것이다.
환경오염에 한 몫을 단단히 한,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는
대기업들마저도 "그린 마케팅" 이니 "나무를 심는 기업"이라느니 참 말도 많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절박하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환경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주한 미군지기의 환경오염문제는
그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지숫자는 대략 120-18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땅은 최소한 서울시 전체면적의
절반규모인 9천여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전국토에 산재해 있는 그 많은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다면?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문은 단지 의문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미군주둔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
나 그런 주장은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3월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군기지 철수 지역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
벨,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 대전 대덕구의 캠프 예임즈 등 3곳의 미군 철수지역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캠프 리비의 토양 오염도는 납의 경우 최고 143ppm으로 공원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나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나타나 일반지역보다 7배나 심하게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근처 버의 자람
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프 예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염도가 일반 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미군이 주둔하다가 92년 5월부터 7월사이에 철수한 곳으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3월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 6백여톤의 각종 오·폐수를 장화
하지 않은 채 흘러보내 근처 황구지천의 물고기가 떄죽음을 당하고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
편을 겪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두차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차례 모두 수
질 오염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60ppm 보다 훨씬 높은 112ppm과 121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고발되어야 할 수치다. K-55 미공군기지는 하루
발생되는 폐수 5천여톤 가운데 3천 4백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1천 6백여톤은 정화하지 않은 채 황구지천
으로 흘러보내고 있다.

그리고 1993년 3월 환경처의 확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매년 염화폴리비페닐, 페타이어, 페운할유, 오일
등 특정 폐기물을 수천톤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대부분 국내위탁처리업자를 통해 불법처리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89년 3월 유엔환경계획이 발의한 바젤협약에 의해 국가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주한
미군은 미 국내법에 외국에서 미군이 발생시킨 폐기물은 본국에 가져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큰 충격을 주었던 1994년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건 때에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에서 정화가 안된 생활폐수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동정천으로 마구 흘러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캠프 캐롤은 낙동강에서 불과 2Km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으며, 정확한 오염 정
도는 미군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으나 1일 배출 생활오폐수는 수백톤으로 알려
지고 있어 그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온상이자 사각지대로
서 존재하고 있다.

왜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그것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준 한미행정협정과 정부의 사대적인 자세, 미
군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은 4조에서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이 협정 6조는 '합중국 군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하수
오물처리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한미군의 하수, 폐기물 뒤통다꺼리를 한국정부가 떠맡

도록 하는 등 엄청난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환경오염문제도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없다. 그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이다. 더구나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자 1993년 7월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0월에 상건례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회의를 갖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 위원회의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역할을 양국 정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오염실태 등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다. 자신들이 오염을 시켜놓고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송탄 K-55공군기지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 평택군청 등이 세차례에 걸쳐 시정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되었다. 미군 당국은 본국정부에 정화시설 비용으로 1천 2백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거절됐으며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도 한국쪽에서 적극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다른 미군주둔국에서는 전혀 다르다. 사실 미군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그들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1992년 10월 30일자 '유에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보도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1981년 8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이 작성한 52쪽 분량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10개의 미군기지에서는 미국이 환경법을 무시하고 독성 및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는 주둔국의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해외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라 미국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2곳의 폐기물 처분장 주변 오염정화와 공군기지 송유관에서 유출된 기름을 정화하는데 각각 2천 2백만 달러와 1천 9백 30만 달러를 쓰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2백 50억 달러를 들여 미국내 군사기지의 오염을 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UR이라는 무기로 한국의 농촌을 파탄시킨데 이어 새로운 개방압력의 수단으로 한국의 환경오염에 대해 그린라운드 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미군범죄의 천국 한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천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 **이 잡아요** 이거 비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살인마거든요?



⚡ **주한미군 범죄사**

92년 10월 28일 동두천시 4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얼굴은 둔기로 맞아 심하게 짓이겨진 채, 자궁에는 피문은 콜라병이 꽂히고, 항문에는 우산이 27cm깊이로 박혀 있고, 온몸이 분말세제로 덮여 있는 주검이 발견되었다. 시체의 주인은 윤금이. 그녀의 직업은 미군클럽 접대부였다. "살해 현장을 본 순간 미군범죄임을 직감했다."는 의정부 경찰서 한 형사의 말은 미군 범죄가 공공연하게 있어 왔음을 짐작케 한다.

80년대 영화배우 출신의 필진한 미국대통령 레이건은 일찌기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 속에서 한국 고아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바로 그 미군이였다. 또, 영화 <킬링필드>나 <머나먼 정글>이라는 외화에서 본 미국 군인들은,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그 모습조차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정의 수호자였다. 그런데 한국을 지키러 온 정의수호군의 70%이상이 불량분자라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문 로버트 올리버는 "남한 주둔 미군 3만명 중 2천명은 불량분자이다"고 했으면 64년 주한미군 군목 언스트 W.카스튼은 "주한미군의 90%는 비도덕적인 성생활에 빠져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71년 한국군 당국의 '정확한' 조사에서는 "6.25이후 한국을 거쳐간 2백만명의 외국 군인 중 70%가 성병과 마약습연자였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었을까, "...초콜릿, 기브 미 점..."을 외치며 미군의 뒤를 따르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곧 인간적인 미군을 두려워 해야 했던것 같다. "그때 미군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리면 할머니건 처녀건 여자는 다 숨었어"라는 어머니의 경계는 교과서가 가르쳐준 선진국예의 경외는 결코 아니었다. 눈으로 보고, 여러 입을 통해 듣고, 체험해 온 '빨갱이'보다 무서운 제국주의 점령군의 모습이였다. 실제 윤금이 사건같은 미군범죄는 1년에 2천명 가량의 범죄자 이름과 함께 신문 한 귀퉁이를 빌어 그날의 사건으로 꾸준히 기록되어 왔다. 미군주둔의 역사가 50년 되다보니 그 범죄도 이제 책 한권의 분량은 족히 넘어 버렸고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의해 '주한미군 범죄

사'라 불리게까지 되었다. 결코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분명한 우리의 역사로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45년 9월 8일 첫 전주 이후 오늘까지 10만명 가량의 미군범죄자가 있었다고 한다. 하루에 5명, 일년에 2천명쯤이다.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를 <발로 찾은 주한미군 범죄 45년사>(백산서당/오연호 지음)에서 찾아보자. 해방후 미군정과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은 참 가난했고 결국 그 가난이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죄가 되기도 했다. 1947년 1월 26일은 음력 설날 그믐날이었다. "미군들이 닥친다. 공출 독려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몇명의 농민들이 막 뛰어 달아났다. 지프차를 타고 온 미군은 총을 쏘아댔고, 총알보다 빨리 쏠 수 없었던 성별남씨는 총알이 머리 목덜미 뒤에서 왼쪽 볼로 관통되어 죽었다. 그 날 성씨는 열다섯가마 수확이면 이십가마쯤 배당이 나와버리는 공출을 한톨도 안먹도 다 낼 수는 없어 절반쯤 내고, 그래도 최대명절인 설을 세기 위해 그간 먹지도 못하고 모아둔 쌀로 마당에서 떡 절구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앗간에 가면 쉬우려만 공출도 안내면서 떡 해먹는다고 단속할까봐 갈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할당량의 전부를 공출하지 않으면 다음해 소작권을 얻을 수 없었고, 빨갱이로 몰려 죽을 염려로 아예 안낼 수도 없었다. 미군은 미병사 7~8명씩을 공출독려대로 꾸려 강제 공출해 갔다. 성별남씨가 죽은지 사흘만에, 정초라 방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전남 나주군 남평군 봉산부락의 김상백씨가 미공출독려대가 온 걸 뒤늦게 알고 이미 도망한 동네 사람들 뒤를 따라 뛰다가 뒷머리에서 이마로 총알이 통과해 죽었다.

"자네 듣기 거북헌 얘기지마는, 꼭 돼야지 먹다는 소리 댄치로 쿵쿵 소리가 나드라고 가보니 자네 아버지가 물팍팍고 머리를 언덕에다가 딱 치박고 쿵쿵하네 피가 막 나와 소식 전하려고 자네 집으로 달려오니 방에서 애들이 막 웃고 장난을 하고 난리여. 그래서, 정열아 그 아버지네 총맞아 죽었는데 뭘하냐 그랬더니 자네 어머니가 막 놀래가고 어이? 그러면서 애들조차 뛰어 나와가고 가보니까 이미... 끝이 다 나와 부렸으니까. 입었던 우와기를 빨래터에서 씻는다 보 부스러기가 뒤아지 허파처럼 똥똥 떠다녔으니..."

라며 당시의 목격자가 40년도 훨씬 지난 일을 김씨의 큰 아들 김정열씨에게 전했다. 가장이 죽자 부인도 핏병으로 죽고, 집안에 어른을 잃은 삼남매가 남의 집에서 머슴, 식모살이 하며 살았다고 한다. 김정열씨의 부인은 "이양반 삼남매 살아나온 말 들어보든, 아이고 어따 대고 말도 못하요. 이사람 참 말이 없어라. 근디 젊어서 술만 자시고 오면, 어메 어메하고 울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고 밤낮 울어라. 그래싸면 옆에서 보기가 징그럽게 속상하요, 그래뉘더니 인자 늙으께 안올테요."했다. 47년 공출전으로 죽은 한국인이 발표되기로는 6명이다. 59년 3월 미 14비행장 철조망 부근에서 때물된 양을 파고 있던 11살의 이우영군은 미 헌병 제임스가 쏜 엽총 31발을 전신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0년이 넘도록 이따의 가난은 계속되었다. 64년 2월이 총격에 의한 미군의 한국인 가해가 가장 빈번했던 달이다. 동두천에서 새마을 키우던 허씨부부는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고 아내는 미군부대 주변에서 깻통과 쓰레기를 주워 팔아 생활하고 있었다. 부인의 벌이는 하루종일 해야 기껏 50원이다. 깻통줍기를 그만두고 임신 아홉달째된 몸을 돌보던 부인 서명자씨는 설날이 다가오자 아이들 때때웃이나 마련해주자는 심산으로 그날새벽부터

깻통을 주우로 나갔다. 그러나 1시간쯤 후 그녀는 미 7사단 31연대 보조 카메론 로버트 일병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녀가 이번만은 꼭 아들이길 바랬던 땃속의 아이도 함께 죽어갔다. 동이 트면서 싸늘한 세치로 돌아온 엄마를 보고 2살난 막내가 젖을 달라고 보채고 있는데 미군측은 서여인이 부대에 몰래 들어와 파이프를 쏘치려 했기에 발포했다고 발뺌했다. 역시 64년 2월 "미군부대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주로 이사한 황오상씨는 노모와 결혼한 지 두달된 부인, 다섯동생을 거느린 가장이었다. 신혼 한 달동안 엽새를 굶었고 사고가 난 것은 아예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던 즈음이었다. 아침에 시래기 죽을 먹고 나간 황씨는 미군부대에서 4백원 하는 빈 드립통 하나를 훔치려 하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 결혼한지 2개월밖에 안 된 그의 색시는 떠나버렸고, 가족들도 훌쩍 이 마을을 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그즈음 가난이 죄가 된 사건들을 두고 신문에는 독자들이 보내온 다음같은 글들이 실렸다.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미군부대 철조망 주변을 헤메었을까? 그들이 좀도둑질을 했다면 용당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인들이... 정부는 백성이 배고파 저지른 이 비통한 일을 하루 속히 안전한 생명선으로 인도하라."

미군에 의한 피해자 중에는 양공주가 가장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공주의 죽을 앞에서 분개하는 데에는 인색했다. "양공주인데 뭐,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라는 식의 편견 때문이다. 그러나 양공주가 되기까지의 원인을 따져가자면 역시 가난이 그 출발점이다. 전체면적이 서울의 절반 크기가 된다는 120여개의 미군기지 즉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군산, 왜관, 송정리, 대구, 송탄 등을 중심으로 약 100만의 매춘여성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양공주들은 대부분 변태적인 성폭행이나 화대에 대한 시비, 또는 마약등 강제 약물 투입 등으로 죽어갔다. 65년 미 7사단 엘리 노페스 이동병은 동거중이던 신미령(32)씨를 식도로 위협, 사랑의 증거로 머리를 꺾었다며 신씨의 머리를 모두 잘라버렸다. 66년에는 미 7사단의 알렌, 케이지 두 중위가 70여명의 미군과 10여명의 카투사들 앞에서 백화자(19)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춤을 추게했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해 항의하던 양공주들을 두 장교가 다시 폭행했고, 더이상 참지 못해 항의한 카투사들까지 "너희들도 같은 종족이다"라면서 영외로 쫓아버렸다. 68년 9월 가난때문에 열한살에 집을 나와 양공주가 된 대구의 손남숙양은 사귀던 미군 체리를 만나러 간다고 나섰다가 부산진역에 버려진 미군용 백속에서 심하게 썩은 시체로 나타났다. 체리라는 미군을 추적했지만 미군 당국은 "체리로 불렀던 공군 사병 등 4명은 68년 7월 6~9일 사이에 월남으로 전출됐다"고만 알릴 뿐이었다. 69년 5월 미 제 335중장비 부대 아버트롭비 상병은 양공주 조영애양을 찾아와 갔다. 그녀가 돈을 달라하자 철사줄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른후 과도로 일곱군데나 찔러 죽였다. 이러한 성적 폭행에 의한 피해는 비단 양공주만의 경우는 아니었다.

48년 3월, 서울 성동역을 떠난 춘천행 열차가 강촌을 지날 무렵, 부틸과 부라운이라는 두 미군 사병이 열차에 타고있던 15세 소년 김정선군과 강현식군에게 각각 덤벼들어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려 했다. 두 소년이 반항하자 김군의 목을 졸라 질식사킨 후 달리는 열차 차창 밖으로 내던졌다. 김군은 즉사했고, 역시 내던져진 강군은 부상당했다. 57년 3월 파주군 적성면 식현리의 김씨집 종가 며느리 최순희씨는 같은 마을 여인 이씨와 빨래를 하러 갔다. "빨래터에 가보니 끔찍해서... 옷을 하나도 안 남기고 훌랑 벗겨 놓고... 완전히 강간을 당한거야. 몸부림치고...그러니까 총대로다가 아래에서 위로 짓이겼나봐. 턱이 으르서져

나가버리고..." 최씨의 동서 이순규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몸에 털이 많이 난 미군이 같이 빨래하던 이씨를 겁탈하려고 하자 말리다가 이씨대신 미군의 우악스런 손에 잡혀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다. 여자건 남자건 어른이 그 집안의 경제력이었던 당시 종가 며느리를 이민족에게 빼앗긴 집안의 가세는 기울고, 국민학생이던 큰 아들 김진호씨는 영양실조로 심한 소아마비가 되었고, 이날 이때까지 그의 아내는 종팔이하고 자신은 영세민으로 배급을 타 먹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45년 이후 미군에 의해 강간당한 한국여인은 백만명도 훨씬 넘는다. 한국 여인 첫 강간은 46년 미군 4명에 의한 집단 유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60년 두아이의 어머니 백종남(35)씨는 파주군 미군부대내 당구장에서 스미드 상병 등 10명에 의해 유간당했고 69년 서천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두 미군에게 한꺼번에 당하기도 했다. 70년 17살의 나전모방 여직공 강문순양은 야간근무를 하러 가던 중 중앙천변에서 미 36공병대 매추스 상병이 욕을 보이려 하자 미제 천막근으로 목이 졸린 채 죽었다. 그런가하면 같은 해 7월 용산기지 영내에서 10세밖에 안 된 어린소녀 박모양이 무려 8명의 미8군소속 미군에게 유간당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 86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충북 제천의 봉양국민학교 이모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다고 들어와 있던 미 25사단 포병대대 소속 병사 5~6명에게 야산으로 납치된 후 집단유간으로 농락당했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이었다.

강간외에도 강도, 폭력, 마약, 밀수 등과 관련한 범죄는 그 이유도, 형태도 다양하다.

62년 논에 나가 못자리의 피사리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던 중 미군비행장 초소로부터 한국인 젊은이들이 도망쳐 나오고, 그 뒤를 미군과 세퍼드 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왜그러는지 길가에서 뒷집치고 뻔히 쳐다보기만 한 50이 넘는 심덕선씨는 "캐치, 캐치"라는 미 헌병 페더슨의 소리가 떨어지나 사나운 세퍼드의 도전을 받았다. 미군은 방망이로 영문모르는 심씨를 때렸고, 개는 온몸이 나체가 되도록 심씨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30군데나 뜯었다. 도 한사람의 미 병사가 합세해 동네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씨를 질질끄러 갔다. 심씨가 팬티라도 입고 가자고 몸시름을 했으나 더 일어 맞을 뿐이었다. 그제 무슨 일인가 지켜보던 심씨는 오히려 '절도를 위한 불법침입'이란 죄로 수원경찰서에 넘겨졌다. 단칸 셋방의 심씨는 약한번 써보지도 못한채 식모살이 나간 부인 대신 끔찍 앓는 몸으로 빨래하고 밥하고 품팔이도 해야 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 딸이 포천에서 미군과 결혼을 했다고 털어 놓았고, 결국 이 딸마저 매일 매절해대던 미군남편에 의해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65년 육구군 옥산면 사정리 앞 노상에서였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권옥한(27)씨를 미 제 44포병대 소속 트럭이 추월하기 시작했다. 트럭이 자전거를 추월하는 순간 이들은 마치 동물을 나뉘듯 권씨를 향해 굶은 고무줄로 만든 윗가미를 던져 목을 낚았다. 그는 달리는 트럭에 5미터 이상을 질질 끌려다니다가 버려졌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미군범죄는 한곳에 옮겨 적기가 무색하게 많다. 밝혀진 그것조차 병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주한미군 범죄 45년사>의 저자 오연호씨는 주한미군 범죄이 이유를 1)아무 이유없이 2)강간을 피해 도주하자 3)정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4)여자제군 강요에 불응했다고 14)잠을 때웠다고 16)뽕을 많이 먹었다고 24)따라 다닌다고 등으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50년 가까이 그렇게 광당한 이유들로 계속 반복해 쓰러져야 했던 한국인의 죄는 무엇일까, 결국 개인은 너무 기난했고 국가는 무력했다는 죄일 것이다.

▶ 한미행정협정

§ 한미행정협정이란

1953년 10월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의 주둔이 합법화 된다. 그들이 주둔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바로 미군의 법적인 지위 문제였다.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만 하나,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서 여기서는 간단히 한미행정협정이라 하겠다.

§ 한미행정협정의 변천과정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협정

□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으로서 1948.8.24 체결

□ 1949.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상실됨.

□ 대전협정과 마이어협정

대전협정: 1950. 6.25의 발발로 다시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게 되므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중에 각서형식으로 체결

마이어협정: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협정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측은 미국에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미국측은 이를 회피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들의 탈선사건의 증대와 한국여론의 분노가 비등해지자 비



로소 미국이 협상에 응하기 시작

○1966.7.9. 체결 1967.2.9.부터 발효되게 됨

○대전협정과 마이어 협정 비로스 폐기

1967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외형적으로 타국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국제법상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이디오피아 협정'과 다름이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의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한미행정협정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1991.2.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개정된 것은 전체 협정의 내용 중 22조의 몇개 조항에 불과했고, 개정된 조항도 다른 조항의 침해를 받아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개정이었다.

한미행정협정은 역사적으로 몇차례 변천과정을 거쳤지만, 몇몇 조항의 부분적인 변화였을 뿐 그 불평등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시설 및 구역

주한미군기지의 무상사용문제



본협정 제2조 1항 (가): 합중국(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의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본협정 제3조 1항: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협정 제5조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에 대하여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한

국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미국측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폭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한 화성군 매항리의 예를 들어보자.

매항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첫째로, 사격장조성을 위하여 500만평의 연안 황금어장과 50만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징발당하여 싹가에 못미치는 징발보상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 후 어장의 상실로 인한 어획량의 격감과 경지면적의 축소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로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 1968년 징발 당시 주민들은 사격장 지역으로 편입된 연안어장에서 연평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당시의 어업구간에 대한 징발보상가액은 총액 1,000만원이었고, 농경지는 당시 싹가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징발되었다. 68년 당시 평당 500원 내지 600원의 농경지가 평당 180원 내지 230원에 징발되었다.

1967년 매항리 주민 이영자씨가 만삭의 몸으로 사격장 인근 해안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중 오폭 투하된 포탄에 의해 등을 관통 당하고 사망하였다. 사고 후 미군 당국에서는 진상규명은 커녕 사망한 이씨의 남편 한장수씨를 사격장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이를 무마시켰다. 미군 지휘관인 C.W. 앤더슨 소령은 당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사격장 부근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곳이 한국내의 하나밖에 없는 사격장으로 미공군 전력의 사활이 걸려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보상과 기지 이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내의 문제"이며, "미공군은 손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주한미군기지의 계속사용 및 반환은 미국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

본협정 제 2조 2항: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같이 반환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미국측은 서울 용산 일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피복과 음식물 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처리를 용역업체인 경남기업에게 하청을 준 뒤 미

44공병부대에 부지를 분리수거 및 쓰레기 소각장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군부대 앞에서 올해로 11년째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전부터 저녁 무렵이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곤 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겨우 미군 쓰레기나 치우려고 13만평이나 되는 노른자위 땅을 놀리느냐"고 말하였다.

2. 민사청구권

미군의 손해배상에 있어 한국정부의 부당한 책임



한미행정협정 제 23조 5항 (마)의 (1): (공무 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저지른 행위)로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부담한다.

민사청구권에 있어 절차의 복잡성

한미행정협정 제 23조 6항: (가) 대한민국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해당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사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조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조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송사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배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배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해야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93년 12월 16일 파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한창열씨는 승차했던 미군2명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목을 칼로 찔리는 중상을 당했다. 동료 기사들의 도움으로 미군들이 검거되고 한씨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생 장애 진단까지 받아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병원 측의 진단을 무시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병원비를 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창열씨는 사건발생1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배상절차는 너무 시일이 길고 복잡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더구나 1년 이상 기다려 배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정도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액수라면 범죄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집행의 어려움으로(본협정 제 23조 9항 배상을 강제할 만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해 놓지 않았다)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는다. 민사청구에 관한 조항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 비해 절차규정상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너무 까다로와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노무조항

(민간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동경이 박탈되어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17조 3항: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언뜻보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충실한 것처럼 되어있는 위의 규정은 "군사상의 필요"라는 모호한 개념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2항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군사적 필요라는 막연한 개념을 해고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 '군사상 필요'를 판단하는 주체가 미군측에 있으므로 한국인 노무자들에 대해 미군당국은 '군사상 필요'라는 미명으로 그들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의 참여가 없는 한미합동위원회

한미행정협정 제17조 제4항 3: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에 그 정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한미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와 미군측 대표로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력을 가지며, 여기서는 노사분쟁의 일방당사자인 미군당국

의 대표자만 참여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고용원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고용원 대표의 참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협정으로는 한국인 노동자 대표의 참여는 원천봉쇄되어 있는 셈이어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다.

〈농장에서 지나치게 긴 냉각기간의 농장주가 불가능하다.〉

한미행정협정 제17조 4항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정의가 한미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규정은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70일 동안은 단체행동을 포함한 정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70일간의 냉각기간은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제14조)상의 냉각기간(일반사업체 10일, 공익사업체 15일)보다 훨씬 장기간이어서 일반노동자들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냉각기간이 너무 길어 정의 자체를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본협정 제8조 2항: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한나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느냐의 척도는 출입국관리, 관세권, 조세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경우 미군용비행장에 접근이나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비행장을 통하여 들어오는 물품이나 출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통제, 확인이 되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것이 밀수품이든 핵무기이든 말이다.

미군의 밀수를 막을 길이 없다. 아래 사항 제9조 제5항 2: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이주물품이나 개인적 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서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여 합중국당국의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미국군사 우체국을 통해 우송된 군인의 군속, 가족의 이사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의 검사에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여 한국세관

당국이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부대에서 미군이나 그들의 가족들에 의하여 흘러나오는 미제 물건들이 밀수꾼을 통하여 시중에 암거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다. 관세없이 들어오는 물건들을 사들여 이윤을 남겨가며 장사를 하는 등 한국시장의 상거래를 교란시키고 있지만 허술한 법조항은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는 인상을 받는다. 미군에게 들어온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가 겨우 그들의 숙소라니 도대체 거기서 어떤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숨길 것 다 숨기고 형식적으로 한번 휘 둘러보는 것 이상 별다른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관세 및 과징금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본협정 제9조 3항: a)미군군대의 구성원, 군속이 한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이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b)미군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c)미군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미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한국에 우송하는 것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의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관세 및 과징금 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더구나 제9조에 대한 합의 의사록 제3항(가)에서는 미군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등은 도착 후 6개월내에는 합리적 분량의 각종물품을 면세로 통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반입되는 물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미군부대내 물건 판매점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

현지의 미군들이 먹는 양의 쌀보다 몇 십배가 넘는 양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와 대량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미군 PX 물품은 허술하기 짝이없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현주소

정부의 노력은?

지난 5월 잇단 미군범죄에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6월 초 한미행정협정 개정노력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사기극'에 불과했다.

1. 한미행정협정의 조항은 전체 31조항이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조 형사관할권만을 언급하고 있어 이것이 일시적인 쇼에 불과 함을 말해주고 있다.
2. 한미행정협정개정의 문제는 전반적인 부서에 연관되어 있으나 그 중심적인 주체부서는 외무부이다. 그러나 정작 외무부에서는 일련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3. 주한미군 범죄의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는 정부의 시대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의 책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4.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개정이 쉽지 않다.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노력의 성과를 두가지로 평가한다. 첫째는, 사대정권 마저도 국민의 힘에 못이겨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흐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현재 협정의 개정을 위해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서울역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항의집회를 꾸준히 가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협상이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때 국회에 청원할 개정안을 연구하고 마련하고 있다.

8월 5일에는 운동본부의 주최로

미군기지 인간띠잇기대회가 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현재 NCC인권위원회 사무실에 겨우 책상 두개를 놓고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서명작업과 함께 후원모금도 합니다. *

한미관계의 재인식

□ 들어가는 글

우리 한국인에게 미국은 오랫동안 해방자, 혁명, 세계 민주주의의 경찰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분단 이래로 한국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반미의 무풍지대로, 아직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해마다 행해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부산에 입항한 미항공모함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던 광주 시민들의 순진한 생각은 학살의 과정을 통해 무참히 깨져 버리고, 5공정권의 폭압적 정치상황과 그를 지원하는 미국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있어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고민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있는데 어떻게 군부쿠데타는 가능한가. 한미연합사령관은 상관인 미국행정부나 국방부, CIA의 지시없이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오는데 민중은 분단 이후 40여년이란 세월과 피땀의 역사적 수난을 겪어야 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관되게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질서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그 기준에서 한국문제도 처리해 왔다.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개입,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정치적 개입은 우선 미국에게 동북아시아에서 소련과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 대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전쟁을 통해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초토화되었고, 국민 전체가 전쟁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극단적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미적 반공정권이 안정적으로 서있는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효율적인 전진기지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환적 이해상관 지역'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다른 전미적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일상적 주장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국의 베트남전쟁, 그라나다 파나마에 대한 침략과 걸프전쟁 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곳이 한국이었고, 수입개방압력 UR협상 등에 대해 매우 민첩하게 요구를 수락했던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군사적 종속성

제2차대전 후 현대제국주의의 총수가 된 미제국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결, 특히 미소대결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대독일정책에 중심을 두었다면 아시아에서는 대일, 대한반도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있어서는 한반도이남을 점탈, 병합하는 것이 전후 대아시아전략전개의 전도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게 될 생명선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미국은 3대륙의 어느 지역, 어느 나라보다도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대한국정책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높은 강도와 집중성을 배가했던 것이다. 미국의 대한국정책은 무엇보다도 아시아침략의 제일선 전초기지로서의 군사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한국은 첫째, 아시아대륙에 붙어있는 큰 반도일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에 인접한 대소·대중 군사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기지로 되며 둘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미군의 점령지대로, 극동병참기지로 전변된 일본본토와 오키나와, 괌도, 필리핀 등 태평양연안의 모든 군사기지에서부터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셋째, 마·일·한 3각군사동맹을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동원, 그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원천지로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국정책은 다음으로 군사침략기지화, 군사부속물화를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화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군사기지화, 군사보급조달지화기반의 정책은 한국의 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었다. 한국이 대미군사예속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투해 있는 그 어느 나라에도 비길 수 없이 심화된 상태에 있다.

그럼 한국의 미국에 의한 군사적 예속의 근거를 알아보기로 하자.

①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야 하겠다. 그 직접성의 하나는 군사강점적 성격의 미군의 장기주둔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단순한 안보지원 주둔이라기 보다는 분명히 군사강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 강점적 성격은 미군주둔이 그 당초부터 우리민족의 요청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주의 통일독립의 지향을 전면적으로 제압한데서 나타나고 있다. 군사강점상태는 6·25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민족의 자주적 이익을 거역한 반민족적 지배집단과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군주둔의 강점적 성격은 또한 미군이 한국의 임의의 영토나 시설을 마음대로 징발, 이용할 권한과 치외법적인 특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 직접서의 또다른 하나는 미국의 국군통수권의 장악이다. 미군의 군통수권장악은 1950년 7월 15일 '대전협정', 1954년 11월 17일 '한미의사록', 1978년 7월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구성에 관한 협정'을 거치면서 그 양상은 일부 변했지만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② 한국의 군사적 예속은 한국의 전지역을 포괄한 전체성, 종합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전역이 미군의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군사기지로, 핵전략기지로 뒤덮여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200여개의 미군기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1천여개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그 밀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상태에 있다.

③ 한국의 군사적 예속은 국군의 용병성이 특별히 심하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국군의 용병성은 1)그 창설 자체가 민족자주권 수호라는 대의로부터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국군의 상충구성은 미국의 군사교육에 의해 체계적으로 양산된 친미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미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에 직접 종속되어 있으며, 4)민중운동의 탄압, 국내위기수습의 폭력적 도구로, 독재정권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5)미국의 대아시아 침략의 해외파병돌격대로 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군사적 예속의 직접성과 전면성, 국군의 심한 용병성은 한국이 철저한 군사적 예속성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예속은 정치·경제체제의 예속성을 심화시키는데도 크게 작용한다.

■ 한국의 정치적 종속성

⚡ 미국의 한국대통령 만들기

상품명: ? 후보, 제조원: 미국 ⚡

미국의 한국 지배 내용은 군사·정치적 지배를 핵심으로 한 신식민주의적 지배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지배의 결정적 수단은 정치적 개입이다. 정치적 개입은 대체로 은폐된 형태로밖에 알려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매우 적나라하고 또한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1공화국으로부터 7공화국에 이르는 한국정권의 창출과 교체과정은 얼핏 보기에는 특정정당의 대통령후보추천과 대통령선거와 같은 민의에 의한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게 되는 미국에 의한 배후정치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어느 경로를 막론하고 미국이 먼저 권좌에 오를 대통령후보를 엄밀하게 물색·인선

하고 최종검토확인한 다음 그의 정치적 부상을 각방으로 밀어주고 그를 중심으로 특정정당을 결성케 하는 사전과정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5.10단선에 의한 이승만정권의 조작에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1. 이승만정권의 몰락과 박정희의 군부쿠데타

이승만정권과 미국의 관계는 8.15직후 민중의 혁명적 진출과 한국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미국은 이정권에게 군사경제적 토대를, 이정권은 미국에게 군작전지휘권 이양과 각종 예측적 조약과 협약을 주면서 위기를 넘겼다. 덕분에 이정권은 예초에 국내에 아무 기반이 없었음에도, 친일파들을 규합하여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6.25를 통해 반공이념을 기반으로 정권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군대의 통수권과 안정적 군사기지를 손에 넣어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의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세계경제의 침체는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원조삭감과 국내의 은폐되었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순들은 4월혁명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정권은 더욱 극단적인 통치방식에 매달렸다. 이시기 미국은 자신의 경제력 약화에 대비, 동북아 지역에 일본의 군사정치경제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극단적 반일주의를 고집하는 이정권이 미국정책의 결렬물로 작용, 급기야는 주한 미대사가 경무대를 방문, 이승만에게 하야를 권고하기에 이른다. 4월혁명 결과 1960년 8월 23일 장면 정권이 수립된다. 그러나 장면정권은 4월의 열기를 희석시켜 주는 수단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안정적으로 보장할만한 정권이 아니었다. 실버 CIA지부장은 장면정권의 한계를 인식, 장면의 정치고문 도널드 윈터카와 더불어 군부쿠데타를 추진하였다. 그는 5.16 몇 주 전 군부 내의 한국인 첩보원 백운상 대령으로부터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듣고 받고 주체세력들의 친미반공의지를 확인, 그들과 자주 접촉한다. 그리고 5월 16일과 17일 연이어 열린 미안전보장회의(NSC)에 CIA국장 알렌 딜레스는 실버의 보고를 토대로 쿠데타 지지를 주장한다. 또한 이 회의 결과에 의해, 5.16을 자신의 작전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시도한 맥그루더 UN군 사령관에게 작전 취소를 지시한다.

2. 박정희정권의 붕괴와 12.12군부쿠데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전쟁과 오일쇼크 등으로 자본주의세계의 장기적 불황과 반미감정이 제3세계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미국의 지배전략의 일부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카터 행정부는 미소협조와 미국·중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지역통합전략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저강도전쟁전략을 추진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저강도전쟁의 구체적 내용으로 1)주한미군의 철수 2)박

정권의 독재강화 및 인권탄압에 대한 압력행사 3)미국인으로 북한 방문과 북한 외상 허담의 방미 실현 4)남북대화 추진 및 미국 주도의 남북긴장완화정책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반공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박정권의 뜻과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이에 맞서 박정희는 절박한 자구책을 마련하나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YH무역회사사건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유신세력 내부에서는 김재규, 정승화 등의 온건파가 민중의 상징적 표적인 박정희를 거세할 것에 합의, 그 결과 10.26사건이 발생한다. 박정희 거세에 미국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근거로는 다음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 1) 김재규는 법정진술을 통해 "나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 2) 박정희 암살에 관한 미국무부의 발표는 한국정부의 정식 공표 시간 3시간 전인 27일 오전 6시(워싱턴시간)였다.
- 3) 전주한미사령관이자 미육군참모차장인 존 베시의 10월 25일 인터뷰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하더라도 한미관계는 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등..

10.26이후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의 기로에서도 미국과 한국 정치군부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그해 11월 초부터 하나회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준비, 정승화가 전두환을 좌천시키기 직전 12.12쿠데타를 감행한다. 당시 주한미군관 국방정보국은 반란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나 CIA는 쿠데타 세력과 접촉해 나간다. 그리고 80년 봄 민주화 요구시위가 절정에 달하던 5월 광주항쟁을 계기로 정치군부는 미국의 사전 동의없이 이동을 절대 불가능한 한미연합사 휘하의 한국군 부대를 광주에 파견, 80년대의 장을 연다.

3. 87년 6월항쟁에서 노태우까지

80년대 카터 행정부를 대신해 들어선 레이건 정권은 '힘에 의한 정책'을 추진한다. 람보식 대외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최대의 군비확충과 제3세계 직접 개입정책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한국·필리핀·중남미국가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은 새롭게 고양되고, 더불어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도 심각해졌다. 86년 한국에서 야권의 개헌서명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화될 기미를 보이자 미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보수대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내각제개헌의 과정을 통해 친미적 야권세력을 전두환정권과 결탁시켜 정치체제에 문민화색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친미정권의 안정된 지배력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여야타협에 의한 내각제합의 개헌을 요구하나, 개헌논의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봉착하게 된다. 신민당은 이 문제를 놓고 일시 혼란에 빠지나 국민 대다수의 압력을 확인하고, 결국 개헌특위 불참을 선언한다. 미국의 정

치적 개입이 분주해지고 CIA출신으로 공작정계에 능한 릴리를 대사로 부임시키고, 미행정부 내의 한국 관계 핵심 실무자들이 연이어 방한한다. 87년 1월 전두환은 내각제 개헌안 국회 강제통과를 시도하려 하고, 그 와중에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다. 박종철사건을 계기로 일단 독주가 전지됐던 장세동 중심의 5공 친위세력들은 신민당의 내분을 조장, 분당시키는데 성공하면서 4·13조치를 단행한다. 하지만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공작은 실패로 돌아가고, 4·13조치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서명운동 확산 저지에도 실패하면서 곧바로 87년 6월항쟁이 시작된다. 당시까지만 해도 시위의 양상에 대해 낙관하여 "한국에서 폭력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미국이 대응도 급박해졌다. 6월 10일 규탄대회가 열리자 CIA한국지부는 시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DIA(미국방정보국)요원들은 한국 군부의 동태를 주시했다. 전두환은 6월 19일 군부대에 이동명령을 내렸으나, 레이건의 편지를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한 릴리 대사와의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부대이동명령을 취소했다. 그때 정호용과 김복동은 군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육사 12기부터 14기까지를 규합, 노태우에게 지지를 모우도록 했다. 6월 23일 시거 차관보는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거는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을 각각 만나 그들의 집권가능성과 미국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준다. 3김씨는 이 모종의 언질을 믿고 노태우 정국주도에 합의하고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 노태우 입지강화에 사실상 연대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6월 7일 미상원은 본회의에서 '한국민주화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레이건 행정부의 정치공작은 일단 마무리된다. 이후 6·29선언을 노태우가 읽어내려 갔다.

4. 친미보수대연합 시나리오와 민자당 결성, 그리고 김영삼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혼란을 겪으면서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흡수하는 정책을 세운다. 따라서 냉전의 고독한 섬 한국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권이 강력한 기반을 가질 필요성이 있었다. 6공정권은 합리적인 권력창출 과정을 거쳤지만, 37%라는 소수의 지지기반으로 등장한 데다가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는 상시적 정치불안을 야기시켰다. 더구나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나 통상마찰, 자본시장 개방요구, 쌀시장 개방요구 등을 수용하며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제어하기에 6공정권은 통치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군사전략도 적극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군비분담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거대여당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정치공작 전문가 그레그 미대사가 취임한 이후 제2야당의 당수였던 김영삼에게 접근, 김영삼은 미국의 지원으로 소련 방문 후에 '북방외교의 개척자, 한·소 수교의 공신'으로 분장되었고, 이것은 후일 이른바 '구국의 결단'이라던 3당합당의 명분으로 활용됐다. 미국의 김영

삼 끌어들이기는 90년 1월 22일 3당합당으로 성공한다. 따라서 3당합당과 민자당 결성, 즉 친미보수대연합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친미보수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3당합당을 추진하면서 후계구상을 다듬는다. 친미보수인사는 누구나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 물론 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군부인사로 가장 저항이 적은 인물이 대권후보가 되도록 지원한다. 김영삼에 대한 더 좋은 대안은 없다." 92년 대선을 통해 김영삼에 의한 권력재편으로 한국 정치상황은 또 한번의 격동을 겪는다. 친미보수대연합에 의한 공안정치는 예고된 것이었고, 한국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력의 지배방식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사소한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를 초월한 광범한 민중의 단결된 힘 앞에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6·27지자체 선거에서의 민자당에 대한 범야권의 승리는 우리 민중의 힘을 보여 주었던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민중에게도 반미의식이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개입이 고도화되고 정치적 폭압이 가중될수록 그에 맞서는 주체들의 자세도 더 높은 차원으로 비약해야만 한다.

□ 한국 경제의 종속성

한국의 정치는 독재, 폭력적 강권정치로 점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성에 대항해서 정치적 저항 또한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 사회의 폭압성, 인권유린사태는 선진국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세계적 탈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반정부 민주인사들을 옥아매고, 체포된 사람은 야만적 고문에 시달리며, 설사 그것이 폭로된다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끄덕도 하지 않는다. 또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활동이 금지되고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그야말로 19세기의 노사관계를 자행하고 있다. 폭력의 행사가 극단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잔혹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사회가 아직 후진국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겪는 일시적, 과도기적 진통일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중위권 소득국가이니까 앞으로 상위권 국가가 되면 이러한 진통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잠정적 해답은 우리 사회가 단순한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 제국주의국가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신식민지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재정치와 경제적 계급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경제는 8·15 해방후에는 미국자본주의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동안 원조, 차관, 수출입, 적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깊숙히 편입되어 갔다. 이제 대망의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입인 현재에도 미국의 경제침략행위는 노골화되고

있다. 수입개방문제는 농민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미국의 한국경제 지배방식의 변화

제국주의 독점자본은 원조, 차관, 무역, 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자본을 수출하여 신식민지경제를 종속시키고 잉여가치를 추출해 간다. 제국주의 자본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맞춰서 지배 방식을 변화시켜 온 것이다. 미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 역시 전형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걸어 왔고, 최근 미국의 경제개방 압력 역시 이러한 자본수출에 의한 식민지 초과이익 추구의 선상에 있는 것이다.

1) 원조에 의한 제국주의 지배 기초 구축

8·15해방 후 일본경제와의 단절로 자금, 원료, 자본재가 부족해진 한국경제는 미국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미국원조는 당장의 물자부족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미국에 의한 원조로 인해 한국의 군사정치는 결정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고, 농산물 도입에 의해서 한국농업이 폐쇄화되었으며, 한국의 공업구조를 소비재 중심의 대외의존적이고 파행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원조나 외환이 정치권력과 결탁된 특정인에게 특별적으로 배분됨으로써 매관적 관료독점적 재벌을 형성하였다.

2) 차관에 의한 이중적 수탈

대일청구권 자금을 통한 원조와 차관을 통해 기술을 일본에 종속당해 우리나라의 기계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다. 이 차관의 주된 수혜자도, 그에 따라 기업부실의 피해를 본 것도 재벌이었다.

3) 수출입에 의한 가치 수탈

차관 원리금을 갚고 핵심적 생산수단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이것은 수출을 통해서 획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무역구조도 선진국에서 핵심부품과 기계를 도입하고 가공수출하는 가공무역형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 또한 높다. 산업간 연관관계도 미약하고, 품목별·지역별로 무역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수입은 일본에, 수출은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

4) 직접투자-생산자본 수출

70년대부터 원리금상환 부담이 없는 제국주의 자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 8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국제분업질서가 수립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자본의 수출로 한국의 생산과정까지 직접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미국 경제개방압력의 배경

미국은 왜 8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적 약자인 한국, 그것도 농민까지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경제개방압력을 행사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대외적 진출 확대에 일부라도 만회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첫번째 이유는 미국 독점자본이 세계적 독점의 지위에 안주하여 기술혁신에 소홀했고, 그 반면 외국에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생산의 거점이 외국으로 옮겨지고 미국경제의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경제의 국제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첨단기술집약사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전통적 제조업은 자본수출을 통해 일본, 독일 및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되는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미국의 국방비부담이 국민총생산의 7%에 달하는 등 세계의 헌병 노릇을 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군수산업이 번창하면 군수독점자본은 유리하지만 군수품은 일반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군수품의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요만 증가시키므로 인플레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쇠퇴하여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내부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독점자본의 이윤추구활동을 규제하여 산업자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해외주둔 군대를 철수시키고 군수산업을 억제하는 등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독점자본의 이익과 맞지 않으므로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 및 우무과이라운드 등과 같이 다른 나라에 자신의 짐을 떠넘김으로써 문제의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전형적 제국주의 형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경제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개방압력과 그에 따른 여러 측면의 개방 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경제개방의 영향은 그 나라 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개방의 확대는 상호적인 것이고 자국자본의 활동무대를 확대시켜 준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후진국의 입장에서 경제개방 확대는 생산력의 측면에서는 외국자본의 주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국에 의한 제국주의 지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다.

경제개방문제에 관련해서 한국경제는 선진국 경제처럼 행동할 것을 강요받고 있

다. 국제회의 석상에서 만나는 외국정부 관리나 학자들의 다수는 한국은 이미 발전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서 선진국의 위치에 들어선게 아니냐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실제내용을 올바르게 관찰하지 못한 피상적 관찰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는 후진국 경제로써 대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민경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취약한 내부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생산력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대외종속성과 파행성이 두드러진다. 한국경제의 생산력 중 핵심부분은 제국주의 자본에 지배당하고 있다. 섬유류는 아직도 주문자상표를 부착한 수출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설계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50%에 불과하다. 또 생산관계 측면에서 우선 재벌의 산업 및 국민경제 지배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 경제의 대외종속성도 수출을 주로 담당해 온 재벌기업이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관계에서 하청생산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가 격심하고 이에 따라 생산력에 대한 노동기피 및 노동의욕 감퇴가 심각하다. 외국농산물의 과다도입으로 인한 식량자급률의 저하, 상업적 농산물의 파잉생산과 가격폭락 등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도 간접세 중심의 대중수탈 조세구조, 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비의 부족 및 관료적 부정부패 만연, 특혜금융과 이에 따른 부패 등 오히려 경제를 짓누르는 기생적 성향이 강하다. 정치적 상부구조 역시 한국자본주의를 위약하게 한다. 금압적 노동정책, 신식민지적 농업정책으로 인해 근로민중에 대한 개량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경제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내부구조 즉 기술체제의 자립화, 경제의 민주화, 경쟁체제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전제조건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상품이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오고, 외국자본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4. 경제개방 대응책은 경제·정치 민주화

1) 경제개방의 연기

개방 그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세계사적 추세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부터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개방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최대한 우리 입장에 서서 개방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다른 후진국이나 선진국과 국제적 연합전선을 펴야 한다. 또한 개방시기 선택에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개방에 따른 손실과 개방 거부에 따른 손실을 정

확히 계산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교역적 기능을 근거로 쌀 등 핵심적 품목의 수입자유화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농산물의 수입문제는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2) 경제민주화 촉진

장기적 대책으로 역시 민족자립경제를 확립하여 외국, 미국의 강압적 경제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내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수출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미국의 수입개방, 경제개방압력에 약한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

이 경향을 돌파하는 방법은 자주적으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는 없으며, 이것은 재벌 중심의 불균등 구조, 저임금, 임금격차를 시정할때 가능하다.

3)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러한 올바른 경제개방 대책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독점재벌의 이익을 옹호해 민중을 억압하는 현재의 독재정권 아래서는 시행불가능하고,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민중운동의 당면한 투쟁과제인 임금인상투쟁, 노동기본권옹호투쟁, 농산물제값받기투쟁과 외국농산물 수입반대투쟁은 민족민주운동의 차원, 즉 정치민주화투쟁과 자주화투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문화의 종속성

라보와 후천성미조결피즈

요즘 눈길을 끄는 광고가 있다. 샤킬 오닐을 주인공으로 한 펄시콜라 선전. 스포츠스타인 샤킬 오닐도 펄시콜라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구걸하는 것을 참아야 한다는 유머있는 상황설정이 돋보이는 CF이다. 이제 이런 외국 수입광고들은 우리들의 텔레비전에 아무런 여과없이 오히려 그 독창성 있는 크리에이티브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광고가 되었다. 이런 광고들의 대명사가 바로 코카콜라 광고. 처음 90년대 초 코카콜라 광고가 방영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선하다" "깔끔하다" "좋은데"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물론 코카콜라는 그렇게 광고에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큼 한국내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어느 청량음료보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카콜라는 계속적인 광고혁신의 과정을 통해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광고들을 선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윤추구 행위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게 못되는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도대체 코카콜라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코카콜라는 전통이 100년이 넘는 청량음료로서 미국이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은 곳에 판매되고 있고 미국이 처음 수교를 맺을 때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뿌리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와 말보로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업들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순진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식 생활의 환상과 아메리칸 드림을 광고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인 제 3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우국지사가 아니라 해도 상당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우리의 문화를 개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 실제로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문화 전반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이 처음 우리나라에 오픈했을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 햄버거 맛을 보기 위해 새벽 7시부터 장사진을 쳤다. 게다가 장사꾼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영화를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무려 몇백만 명이 감탄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신드롬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워했다. 이제 는 별볼일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홍콩 느와르를 한때는 미처 제작도 하기 전에 아예 입도 선매했고, 우리끼리의 경쟁을 통해 몇몇 외국 영화는 일반 시장 가격 이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는 분명 이전과는 비길 수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여름에 입는 긴 팔 티셔츠와 맥도널드 햄버거, 그보다 조금 더 세련된 피자, 유덕화와 주윤발이 나오는 홍콩 느와르에, 경외해 마지않을 수 없는 아카데미에 빛나는 무수한 할리우드 영화비디오들, 어린이용 <닌자거북이>와 <플래쉬맨>, <드래곤볼>이 있어 더욱 풍요롭다. 은밀하게 즐기는 성인용일 테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욱 반가운 <스포츠신문>의 부록과 각종 도색 잡지가 문화 좌판의 구석을 갖춰주고 있고 과거에는 짜증스러울 뿐이었지만 이제는 꽤나 재미있는 광고 영상의 자극 또한 빠질 수 없는 재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대로 자본주의 체제가 움직여 나가는 데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자본이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는 경제적인 부분의 질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라는 다소 느슨하고 방만하게 보이는 부문 역시 이 자본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의 문화는 장르나 매체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지만 대규모로 유통, 소비되는 것일수록 이 자본의 압력을 거세게 받는다. 이 압력에 따라 문화의 산업 구조, 시장 전략이 형성되고 그 생산물의 내용 또한 이러한 압력에 상당하게 구애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의 연쇄가 성립한다. "이 연쇄하에서 문화의 질이나 등급은 그것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진실하게 만들어 주느냐, 또 정신생활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이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성잡지가 그 대표격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문화가 어떻게 하나의 뿌리에서 풍요와 불모가 함께 교차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가 보인다. 문화에 투여되는 자본의 논리는 예상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화물은 가차없이 잘라내지만, 그렇지 않고 앉아서 하는 장사에는 언제든지 풍요로운 온실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엄청난 풍요가 가세한다. 500년도 채 되지 않은 문화를 자본을 통해 훌륭하게 급조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 '아메리카주'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세계적 문화 가치로 확산시킨다. 미국의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안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국민의 능동적 동의를 이끌어낸 우수한 메커니즘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풍요를 점령지에 대한 정치적 교화수단으로 삼았고 남한의 경우에도 미군정 3년간 근 100여 편에 달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수입되었다. 이들의 풍요는 우리 자본이 만들어 낸 풍

요의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랬듯이 우리의 풍요가 함량 미달이었을 때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 미달을 충실히 보충해 주었고 일일극과 새마을 운동 사례에 식상한 적지 않은 시청자들의 즐거운 메뉴가 되었다. 또한 이들 영화 대부분이 수입가 이상의 수익을 올려줌으로써 취약한 우리 영화 자본의 생존에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들은 직접 배급과 비디오 대여점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자본과 정부는 그들을 거절할 힘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관객들은 미국적으로 물든 영화보기로 늘 목마르게 쇠신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문화적 풍요를 우리의 것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유는 딱히 없다. 소련의 투항으로 이미 냉전이 청산되었고 전 세계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권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풍요들은 이른바 'Global Culture'로 통합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들의 문화가 그만큼 선진적인 것인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또 다른 의도에 대해서는 침묵해도 되는지, 이들에 의해 우리의 자본과 문화는 그대로 질식당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미국의 이와 같은 세계적 문화 지배의 이면에는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한 경제 잉여 이외에도 제 3세계로부터 있을 수 있는 잠재적 도전이나 비판 의식의 팽아마저 박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할리우드의 탄탄한 스토리 구성력과 뛰어난 영상 제조술, 노련한 편집 기술로 포장한 내용물에는 마약을 빌미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온갖 노골적인 간섭과 지배를 자행하고 있는 미국의 정당성과, 절프전 등을 계승으로 이끈 미군의 영웅상이 들어 있다. 이 영웅상은 스피버그류의 유아적 이분법 속에 대입됨으로써 더욱 힘을 발휘한다. 지구의 위기와 동일시된 전세계 체제의 위기에는 어김없이 슈퍼맨과 람보, 007과 터미네이터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아닌 형상화된 미국의 군사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말 주말 텔레비전프로그램중 황금 저녁시간을 차지한 것은 MBC의 맥가이버였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맥가이버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때 맥가이버의 방영이 끝나자 시청자들의 요구가 쇄도하여 다시 방영하기도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도대체 맥가이버의 그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몰입시켰던 것일까? 맥가이버는 질차를 타고 조금 긴 머리에 청바지와 메틸구두, 점퍼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백인 미국인이다. 그는 피닉스 제단에서 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일하고 있다. 그가 주로 파견을 나가는 곳은 2차대전 이후 줄곧 미국을 괴롭혀 왔던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미개하기 그지 없는(?) 남미다. 맥가이버는 그곳에서 피도 눈물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KGB를 때려눕히고 불쌍하게 포로가 된 미국인을 구하며, 남미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유색인종들에게 평화수호자로서의 미국의 면모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가끔가다 화면속에 나타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한국인들은 언제나 맥가이버를 골치아프게 한다. 그들은 도대체 문제밖에는 일으킬 줄 모르는 존재들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 매체들은 지독한 백인 우월주의 의식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모든 모티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소련 첩보원이 죽을 때 박수를 보내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간접적 단죄를 하며 다시 한번 반공 안보의식을 다진다. 그런데 또 이상한게 있다. 도대체 이런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고교생이 되자 미국의 문화와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친구들과 사이에선 브레이크 댄스가 유행했고 양키식의 현란한 옷차림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방송반의 점심 시간 방송은 대부분이 팝송이었고 우리 동네엔 '아메리카나' 같은 미국식 빵집이 더 많이 생겼다. 그러나 그 중 최고는 역시 미국 영화였다. 어른들이 '요즘 애들...' 하면서 비꼬던 마이클 잭슨은 한물 간 지 오래였고 그 공간을 람보가 채웠다. 람보의 위력은 참 대단했고 또한 참으로 오래갔다. 나는 그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람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가서 기다렸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람보의 모습이 새겨진 T셔츠나 람보가 대포같은 총을 들고 딱 버티고 서 있는 커다란 사진이 불티나게 팔린 것은 둘째치고 람보 게임이란 것마저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그 유명한 람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백인우월주의'나 '살인자 람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이었다. 이야기인즉 영화의 오락성이야 어떻든, 즐거이상으로 람보라는 청년은 미군 포로를 구출한다는 핑계로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그 나라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살인자이다. 그리고 이런 수법은 옛날 제국주의 열강들의 고전적인 수법, 즉 선교사의 죽음을 내지 자국민의 보호를 핑계로 남의 나라에 군대를 출동시켰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영화에 미국 관중도 아닌 한국 관중이 열광하는 것은 무슨 풀이냐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릴 적에 본 서부 영화에서는 기병대의 적인 인디언은 아주 흉악한 놈으로 나왔고 <중략> 미 국을 상대로 싸우면 무조건 나쁜놈으로 그려지는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홍기표의 교과서속의 미국, 내가 본 미국 중에서-

이렇듯 미국은 그들의 문화를 무기로 '후천성민족결핍증'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침윤이 가져오는 효과는 너무나 심대하다. 우리는 너무나 미국식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된장찌개는 촌스럽고 피자와 경양식은 왠지 고상해보인다. 상표가 우리나라 언어로 돼있으면 (삼천리보일러처럼) 왠지 후져 보이는게 우리의 감성이다. 미국인이 입다 버린 중고 청바지가 심판원을 호가하며 버젓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합리주의적 사고를 갖지 못한 우리민족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 국민에게 없는 함께 하는 공동체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미숫가루보다 커피가 더 세련되고 고상해보이며 아무리 김치가 맛있고 우리입맛에 맞아도 도대체가 햄버거보다는 우아하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새 미국사람이 되어버렸고 미국사람이 되기 위해 미국식 생활을 흉내내기 위해 소비를 한다. 우리의 돈은 미국상품을 사기 위해 -마이크로칩의 신보를 사기 위해, 외제 청바지를 사기 위해, 주라기 공원을 보기 위해, Malboro를 사기 위해 흘러나간다. 문화적인 종속은 결국 경제적 종속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힘들게 번 우리의 돈을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공통에게 바친것이다. 물론 선택의 자유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의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란, 그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않았던가?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미국의 문화가 만들어준 삶을 '살아 버리게'되는 것이다. "문화가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함은 바로 자신의 것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데서 진정한 자존의 힘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터미테이터가 우리의 의식과 지갑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음험한 심의의 가위질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파업전야>를 합법화해 내지도 못했으며, <디즈니랜드>와 <드래곤 볼>에 모이는 어린이들을 막아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들이 가르쳐 온 재미의 공식을 배우지 못해 안달하고 우리의 것을 모방과 상업적 조악성으로 온통 얼룩지게 해버렸다. 자본이 제공하는 풍요와 불모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불모는 미 제국주의 문화 자본의 더 큰 풍요와 그 풍요를 정권적 안보의 차원에서 이용하려 하는 정치 권력으로 인해 더욱더 척박한 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김영삼의 '세계화'논리에 수입개방이 대세처럼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 것을 지켜내고

우리의 것을 발전시킬 토양마저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가?

우리에게겐 처음부터 한가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국'을 잃어버렸다.

또한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과 미국에 빌붙은 정권에 의해 언제나 무참히 짓밟혔다.

미국의 문화는 과연 우리의 것을 포기할 만큼 선진적인 것이었던가?

진지하게 이제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도대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어떤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주었던 걸일까?

더 이상은 없다.

지금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



⚡ 만델라와 8.15민중동행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맨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다이아몬드'와 '인종 차별' 일 것이다. 소수의 백인들에 의해 통치되던 사회, 그래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유달리 심했던 나라,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3백 42년동안이나 지속된 백인 지배와 흑백차별 속에서 점철되어왔던 흑백 사이의 증오와 갈등의 역사가 드디어는 화합과 통일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데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넬슨 만델라는 비폭력 저항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인권 운동가로 출발해서 60년 '사프린 학살'을 계기로 무장항쟁조직을 결성해 결국은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장기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90년에 석방되고, 94년 봄의 총선에서 압승하여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된후에 그에게 남겨진 숙제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흑·백간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화합하고 함께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느냐였을 것이다. 한 나라의 발전은 모든 국민들의 단결에 기초하지않고서야 이루어질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만델라는 그 시작의 문을 과감히 열어젖혔다. 그것은 얼마전에 남아공에서 개최됐던 세계럭비선수권 대회에서부터 민족화합의 가능성을 온국민과 함께 만들어 냈던 것이다. 원래 럭비경기는 남아공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만델라역시 대통령이 되기전까지도 모든 흑인들과 함께 럭비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세계럭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가 직접 개최사를 낭독하고, 남아공 럭비선수들을 격려한것이였다. 물론 럭비대표선수들은 유일하게 한명만이 흑인혼혈아였고 모두 백인들이였다. 결국, 남아공선수들이 우승을 했고, 시상식때 만델라는 대표선수에게 "남아공을 빛내줘서 감사하오."라는 치하의말까지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백인대표선수는 "당신이 하시는 일에 어찌 비기겠습니까?" 라고 대답 하였다 한다. 물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흑백의 이제까지 인종의 갈등을 뛰어넘어 모두들 남아공이름아래 모두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며 하나가 되었던것이다.

이런 지린 소식을 접하며 언제부터인가 조심스럽게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때 북한을 응원하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물며 결코 화합할 수 없게 보였던 흑·백문제가 럭비라는

매개로 화합의 첫 포문을 열어 찢었는데, 우리는 5000 여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같은 찢을 같은 언어 같은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민족 화합'이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지 알수가 없다. 분단50년, 해방50년 스스로 원해서 갈라진것도 아닌데, 반세기가 다 지나도록 한번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적은 없었던것 같다. 겨우 이제야 미국보다는 북한선수를 응원 할수있을 정도일까! 한번도 경기에 단일팀으로 국제경기에 참가한적도 없으며, 한번도 한자리에 같이 앉아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민족문화를 가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낀적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어떠한 조그마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수백배 아니 수천배의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어낼수 있는 민족이라는 확신만큼은 변함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뻐고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고 세계 인류역사상 유일한 분단민족 분단국가 라는 오명을 씻어야 하며 민족화합을 이루어내야 할것이다. 만데라 대통령과 남아공 국민이 함께 해냈듯이.....

하지만 만델라와 김영삼과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것이 문제일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실제로 헬무트 콜 총리는 결코 독일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웃 나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단히 유연한 외교를 펼쳐나갔다. 독일의 독립화를 고집하던 소련에 대해 통일과 함께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을 설득해내기위해 동독에서 철수하는 소련군을 위한 주택까지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한다. 이처럼 독일의 통일을 위해 국제적 역학관계를 과감히 잘이용해 통일을 성취할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만델라나 독일의 콜 총리가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제일 먼저 했던일이 무엇일까? 아마 '국가 보안법' 부터 철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 같은 국민이면서도 '이적 단죄'로 규정된점이며, 이 규정에의해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더군다나 만나지도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3 청년학생 통일선언 대회에 초대된 북한 해외청년학생들이 국보법에 근거하여 당국의 불허방침으로 입국하지도 못했으며 한총련단위의 집회조차 불허한 일만 보아도 알수있다. 김영삼은 절대 '국보법' 철폐하지 않을것이며, 통일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조문파동때도 그러했고, 올해 한국통신 사건때에도, 북미 경수로 회담과정에서도, 올해 북한 쌀 제공에 있어서나 아주 일관되게(?)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이 우선 한다' 그의 취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하에 민족사의 대전환을 만들지는 못 할망정 분단 50년을 맞는 4000만 민중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못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민이 함께 만들어가고자하는 8·15민족 공동행사를 또다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암만 생각해도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의지도, 민족이익 수호에 대한의지도 없나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해 볼수 밖에 없을 것 같다.

38선이 그어졌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처음처럼 시작해야 할것 같다.

이번 8·15민족공동 행사를 우리의 힘으로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뤄 내는것이 바로 그시작이 아닐까 한다. 우리에게만 만델라와 같은 대통령은 없지만, 어느때보다더 달구워진 4000만 민중의 통일열기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리라 확신한다.

소설 '뱃별'을 읽고

뱃별)을 읽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기지촌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많던 학우 다섯이 모였다. 김충모(기계 90), 권현옥(영교 91), 전명희(영문 92), 김현(동양학 92), 김민영(경영 93) ~ 이 다섯사람이 약 두시간 동안 뱃별을 읽은 소감과 기지촌의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이형, 이렇게 남자의 몸으로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용. 그런데요, 뱃별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책을 안읽어서요. 참 희한한 제목이던데...



(당황해하며) 응? 뱃별이 무슨 뜻이지? 갯벌 비슷한건가?

푸하하하하하하



(참이형을 흘겨보며)아니, 책읽었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뱃별'이란 의정부 스타리 미군부대 옆에 있는 동네로서, 기지촌 여성들의 빼도 박도 못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음... 그렇군(금적금적). 책 하나 잘 못 읽어서 이게 뭐고생!

1> 소설 뱃별은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소설들을 주로 써온 안일순씨의 최근 소설로 기지촌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생생한 소설. <공간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



→ (후후후) 그런데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게 있었어요. 여자들의 경우, 특히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은 매매춘여성들의 삶을 많이 이해하게 되요. 그런데...남자들은 안그런거 같아요. 남자들의 경우 매매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나요?



→ 고 2때 친구들로부터 매매춘의 유혹을 처음 받았어. 그때 난 별 관심없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그중에는 실제로 윤락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애들도 있었어. 단지 그때 '매매춘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었어. 대학에 들어온 후엔 내 나름대로 매매춘이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세웠어. 사람이 사람을 산다는게... (쩍) 하지만 내 주위사람중엔 술먹고 군대생활하고 그러다가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데 가기도 해. 뭐 그렇고 그렇지.

그런데 여성들은 왜 매춘의 길로 들어설까? 건강한 노동의 방법도 많이 있을텐데...



→ 일단 우리들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 버리고 단정짓는 방식을 지양하자. 이 책의 주인공 승자나 옥주의 경우를 보면 승자의 경우 어려서는 동네 오탁한데 강간을 당한데다가 계모밑에서 자라고, 수도없이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 옥주의 경우는 고등학교때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충격에다가 유산까지 해. 결국 승자, 옥주는 가출하게 되고 갈곳이 없어 기지촌으로까지 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의 기회와 조건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데다가, 많은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온 여성들은 대다수가 순결을 잃고 충격과 순결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어.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으로 매춘의 길로 들어서지. 공단부근에 무수하게 나붙은 <초보자 환영, 침식제공, 월수 300보장, 진회까페>같은 광고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겐 우습게 보이기도 하지만 절박한 사람에겐 그만큼의 절박한 의미로 다가오는것 같아.



→ 맞아. 한국사회는 정부의 묵인하에 많은 부분 매매춘을 정책적으로 조성해주고 있어. '기생관광'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나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 여성에겐 반드시 성병검사 확인증을 달아야 영업을 인정해 주는 것 등등. 도대체 절박한 그들에게 하나의 길만을 만들어 주는데 별 도리없잖아? 물론 호텔에서 프리랜서로 매춘을 하는 물지각한 여대생들도 있다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고 98%이상의 매춘여성들이 타의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자의로 매춘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야.



→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던데... 매춘 행위는 원래부터 존재해온 것인데 주한미군 철수가 대수냐고, 미군이 철수해도 매매춘은 계속될거 아니냐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고 싶어.



→ 물론 미군의 철수로 기지촌의 매매춘이 사라진다는 건 아니지만 기지촌의 상황이 '매매춘'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기지촌의 문제엔 민족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걸. 일제시대의 정신대 할머니들과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족적으로 종속되어 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또다른 억압속에 살고 있는거죠. 미국과 한국이라는 묘한 민족의 문제가 그녀들을 더욱 베풀고 있어요.

● 미군들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착한 미군은 없나요?



→ 소설에서도 나오지만 미군주들 초기에는 한국으로 온 미군들 대부분이 동양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왔었지만 지저분한 거리, 돈만 뜯어 내려는 매춘여성들과 지저분한 음식때문에 끔찍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의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군들도 같은 입장에서 한국인들을 바라봤어. 하물며 매춘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지촌 여성들은 그런 막되먹은 미군과 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나요?



→ 매매춘을 하는 여성일수록 순결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집착해. 즉 '나는 버린 몸'이다, '한국 사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적어도 미국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책에서 보면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들을 상대하다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한대. 얼굴에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이라고 써붙여 다니는 것도 아닌데 티가 나는 것 같다. 양놈냄새가 온몸에 배인것 같다 이런 자각지식과 한국사회에서의 양갈보에 대한 비난과 질책, 더군다나 혼혈아까지 딸렸을 겨우 설령, 기지촌을 떠날 수 있다해도 그 아이를 데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적어도 그런 차별, 사람차별을 하지 않는 곳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그토록 미군과의 결혼에 집착하게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아마?

● 들어보니까, 기지촌에 사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어느 정도죠?



→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나고 한국아이들도 태어나지만 워낙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주위의 환경이 그렇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미군의 문화와 매매춘 문화를 그대로 배우게 되. 책에 나오는 백순실씨의 딸인 혹은 혼혈아 '로즈'의 경우, 백순실씨는 클럽에서 일을 하지만 자신의 딸만은 마을 어떤 가정집에 맡겨 두는 거야. 교육상 안 좋으니까. 하지만 국민학생인 로즈는 학교만 가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고, 엄마는 보고 싶으니까 클럽을 찾아오곤 하지.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열나 두드려맞고. 하지만 그 애가 자라면서 접한 환경이 그것밖에 없고, 엄마도 생계 때문에 애한테만 신경 쓸 수도 없고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기지촌 문화에 노출되는 거야. 혼혈아라서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접받을 수도 없고 하차리 자신이랑 비슷하거나, 매매춘 여성들 -이모라고 하지?-이 있는 곳이 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또 그곳을 못 떠나지.



→ 그래요. 제 친구는 기지촌 주변에서 살았는데 중학교때부터 줄곧 서울서 유학을 했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데요. 거기선 나쁜것만 보니까 얼른 서울로 보내는거죠.

잠시, 한숨+슬픔=고요?



→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이유중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부분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이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그것에서 나오니까요.



→ (주먹을 불끈 쥐며)음!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해!

반미라는 말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진 못했어. 하지만 역사를 다시보게 되고, 미군의 범죄들을 접하게 되면서 90년대들어 반미감정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거 같아.

얼마전 지하철에서 미군들이 어머니를 때리는 아줌마를 추행하는걸 젊은 청년

이 항의하다가 집단 폭행당했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분개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는 희망이 보여요. 온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일고,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 음...난 아직 혼란스러워. 남자라서 그녀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생겨. 지난번 여자 후배들과 정신대 문제를 다룬 <반쪽날개로 날아 온 새>라는 연극을 봤는데 난 민족적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분노했고, 그래서 슬펐어.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그런거는 둘째치고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졌나봐. 아주 많이 울었어.



→ 그래도 형같은 사람이 있어서 희망이 보여요. 적지 않은 남자들이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궁금한게 있어요. 저...북한에도 매매춘이 있나요?

퍼걱(매리는 소리) = 사실 북한에서는 가정과괴범을 사상범 다음으로 중죄 취급한다. 따라서 매매춘, 간통, 강간은 엄청난 형량을 받게 된다.

이야기는 별 쟁점없이 끝났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것 같다. 매매춘은 옳지 않다는것, 게다가 민족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기지촌 여성들의 매매춘은 더욱 옳지 못하다는 것. 여타 많은 이유들로 해서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것. 모두들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모색하기 위한 다짐으로 더욱 희망차게 헤어질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의 역사는 인류사회가 생성된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더욱이 사유를 둘러싼 정복과 지배를 전쟁아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위험아래 살아왔으며 피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성폭력의 역사가 인간사회에 보편적 현상이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이렇게 강요한 것은 세계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어린 팔들을 아시아 전 지역으로 끌고 다니면서 노예로 삼았고 폐전과 더불어 학살하거나 유시해 버린 만행은 우리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인류사회와 인간자체에 범한 죄악이다. 그러나 일본은 5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사죄로써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며 92년 1월 정신대 만행에 대한 관계를 마치못해 겨우 시인하는 발언으로 그치고 말았다.

“죽을 고비 넘기고 돌아왔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어디 한군데 몸 성한데도 없어 일도 못하고 생활 보호대상자라고
한 달에 몇 만원씩 받기는 하지만...”

지금도 이 땅에도 지난 50년의 세월 속에서 짓밟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외롭게 살고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마도 얼마 전 TV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절규하시는 어느 정신대 할머니의 고통스런 모습을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조선 여성 가운데 무려 20만 명이 전쟁광 일본군의 정역받이가 되었던 참혹한 시대의 역사 속에 오직 민족이 침략 당했던 이유 때문에 당한 만행을 마치 자신의 업보인 듯 그저 부끄러워하며 죽은 듯이 50여 년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이 바로 이 땅에 있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간 열 일곱살 친구들을 생각하며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눈물로 정신대 할머니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으며 그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본이 진심으로 우리 앞에서 사죄하는 것이며 그 사죄의 표시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1990년 11월 16일, 발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라는 것이 있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정대협은 세 가지 운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왔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같은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인류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류역사 속에서 이처럼 추악한 행위를 발견해 내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이 범죄행위가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현실에 대해서조차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관계는 평등한 한일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진행되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중대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일본정부의 한치의 변화도 없는 오만하고도 후안무치한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고, 허탈하게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워 왔다.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어 우리들이 연대한다면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함께 배우는 노래

들어라 양키아

말들아 일어나라

라 람 - - - 람 - - - 람 - - - 람 - - -

라 - - - - - 전기

은 반도 성 강 애애오르 는 길 달 래 강남을 세워 어

기 여롭게 군세 가슴으로 그 대 동애 에 설 다 순정

은 설 은 그 국 배도머리요로 청 람 외 불을거를가 보

라 희문의 피로 매운부수로 그 대 동애 에 설 다 보

라 여 기, 이 반도 를 불알 의 사슬 끊 은 국 한

외 힘 으로 평하 니 여제 는 어둠을 가 라 들어

라 양키아 들어 라 이 땅 불의의 함성 을 들어

라 양키아 들어 라 해 방 동 일 몸 것 을

김호정 작곡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밝아 올랐을 때 새 학기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혁명사위주 인민 노동자

피해자들은 - 학살당하고 있고 말들아 일 어 나
더 이상 - 피살을 당하지 않게 말들아 일 어 나

라 깨 어라 아방 의 노동자 로 태 - 어 나
라 깨 어라

자랑스런 딸로 태어 나 사람도 될 - 복도
고귀한 모상보로

다 빼앗겨 버리고 장악한 그 시설 몇 몇 해
다 빼앗겨 버리고 장악한 그 시설 몇 몇 해

나 가자! 깨 부수 자! 성 자멸노 투쟁 하

봉치자! 무 정이 다 - / 여성태방노 투쟁 하!

기쁨을 다녀와서

솔직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봅시다. 여학생회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읽고 제일 잘 쓰신(?) 분에게 뱃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름
- ✓ 학과 및 학년
- ✓ 연락처